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정보가 권력이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정보는 돈이 되고 이익이 된다. 주식 시장에서 기업의 정확한 정보는 투자 성공이 되고,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 정보는 곧바로 돈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이용한다. '손자병법'에서는 정보를 전쟁의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정의한다. 병사를 모집하고, 훈련하고, 물자를 모아 전쟁 준비를 하는 데 적의 정보를 모르면 결국 전쟁의 패배로 이어지니,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돈과 지위를 아끼지 말라고 강조한다. 용간(用間)은 정보원의 활용이다. 인적 정보를 통해 확실한 정보를 얻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고급 정보는 일반 사람의 눈높이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일반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높은 곳에서 보아야 비로소 남들이 못 보는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

농단(壟斷)과 천장부(賤丈夫)

서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힘쓰는 것이다. 옛날 시장에서 고급 정보를 얻으려는 남자가 있었다. 어디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지를 정확히 알면 엄청난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옛날 시장은 현물 거래였기 때문에, 시장에 물건을 거래하러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현물의 공급과 수요로 가격이 결정되었다. 쌀이 넘쳐나면 쌀 가격은 내려갔고, 직물이 모자라면 직물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정보를 알려면 높은 곳에서 시장 전체를 보아야 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시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언덕(巔)에 올라갔다. 그 언덕은 깎아(斷) 세운 듯 높은 곳이었다. 농단(壟斷)에 올라가니 시장 어느 곳에서 어떤 물건 얼마나 거래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싼 곳에서 물건을 사다가 비싼 곳에 가서 팔아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남자를 천한 남자(賤丈夫)라고 부르며 멸시하였다. 농단에 올라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였다. 농단은 재주라고 하면 재주다. 왜 너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시장 전체를 보고 정보를 얻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덕은 아무나 올라가는 곳이 아니다. 힘이 있어야 하고, 부당 거래에 대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뻔뻔함이 있어야 한다. 시장을 관리하는 감독관은 이런 농단의 폐해를 근절하고자 세금을 거두었다. 이익을 얻은 만큼 국가에서 세금으로 징수하여 이익을 못 본 사람에

게 나누어 주고자 함이었다. 시장에 대한 공권력의 첫 개입이다. '맹자'에 나오는 농단(壟斷)에 관한 이야기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단을 통한 이윤 추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 이윤을 얻고, 선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큰 죄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거대 기업이 가진 고급 정보와 거대 자본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빼앗아 가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권력과 결합한 농단이다. 국정이든 사법이든, 자리를 이용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한다면 응징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고급 정보를 가진 공직자에게 주식이냐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농단의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높은 자리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두나무 밑에서 갖을 고쳐 쓰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애초부터 의심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를 가진 국가의 공직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이 높은 언덕에 올라 자신의 이익을 찾는 농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농단의 결과는 천한 사람이라는 칭호와 몰락이다. 비록 주머니에 돈은 가득 채웠지만 천민 자본가라는 비난과 함께 비윤의 결말을 맞이한다. 농단의 결말, 모두 알고 있지만 미리 알고 피하는 사람은 매우 드문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종교칼럼

공동의 집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지구의 심각한 위기에 맞서 공동의 집을 위해 일합시다.” 2015년 6월 18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회칙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를 발표하였고, 한국 천주교회는 같은 해 9월 1일자로 한국어판을 펴냈다. 한국어판 제목은 ‘찬미받으소서’, 부제는 ‘공동의 집을 돌보는 회칙’이다. 교황은 회칙에서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으로 기술 만능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대화와 생태 교육을 촉구하고 있다. 교황은 현재 지구에 나타나는 생태 위기에 주목하면서 지구가 겪는 고통이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기 위해서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라고 묻기까지 한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이 교황의 회칙과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소비와 욕심을 들여다보면서 발전과 풍요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 보호와 파괴 방지에 대한 노력이 몇 사람의 노력이나 한 종교의 힘만으

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 지구, 공동의 집에 함께 사는 모두가 인지하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동의 집인 지구의 환경에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다르다는 것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보호해야 할 자연의 선물을 독점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에 소유와 경쟁의 시선에서 승위를 정하고 자연의 선물을 몇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한다면, 자연은 이제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착취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누구는 자연의 선물을 누릴 수 있고 누구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서로를 분리하고,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이 개념의 변질은 차별과 폭력의 시작이고, 소외 현상이 당연시되는 사회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취급되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나’를 인정해 주는 상호성이 내재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후쿠시마 핵폐기물 오염수 방류가 초미의 관심사다. 신안군의 한 성당에서 사목하는 후배 사제가 ‘내가 소금장수가 돼 버렸네’라는 말을 했다. 심지어 어머니로부터 “우리 집도 사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화를 받고 천일염 사제가 피부에 외달았다. 모두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분노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물질과 돈, 천박한 자본주의 시각에서 해결할 수 없다. 무엇으로도 살 수 없으며 파괴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자연이기

에, 더는 악화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지금 세대의 의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환경 보호가 의무와 사명이 아니라면, 우리 삶의 저하는 물론 사회가 붕괴할 것이고 불평등은 볼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는 인류의 모든 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는 인류와 모든 생태계, 심지어 지구와 우주까지도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공동의 집에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지구의 수호자, 관리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데 실패했다”고 개탄하였고, 생태계의 파괴는 인류를 파괴할 것이기에 생태계를 형제·자매로 여기고 돌보며 함께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공동의 집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호소한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은 가끔 용서한다. 하지만 지구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스페인어 격언도 말씀하신다. 각자가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았으면 한다. 편안하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 그렇다면 내가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 공동의 집에서 함께 할 수 있는지 묻고 그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공동의 집을 돌볼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기고

계란 두 개 때문에



김목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회장

우리나라 기후인 사계절과 여름 장마, 겨울 삼한사온은 교과서의 가르침이다. 하지만 요즘은 봄과 가을이 실종되었다고 하고, 장마 예측도 힘들며, 겨울 추위도 들쭉날쭉이다. 이렇듯 날씨가 예사롭지 않으니, 이를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재앙이라고도 말한다. 이런 때에 인구 절벽의 암울한 미래, 눈앞 후쿠시마 핵 폐수의 불안과 공포를 결코 과감하다고 덮을 수 없다. 단기·중장기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버려진 땅이 될 지도 모른다. 특히 정치 권력이 이 모든 게 과거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들춰 상황을 호도하는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로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핑계이고 모래탑일 뿐이다. 보성이 가련 열선루가 있다. 1597년 8월 15일 수군 재건길에 나선 이순신이 열선루에 머물 때이다. 선전관 박천봉이 선조의 분부를 가져왔다. 이순신은 곧, 잘 받았다는 장계를 썼으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이다. 겉으로만 보면 선조의 명에 큰 각오로

따르는 내용이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왕의 명을 거스르는 일이다. 1597년 8월 3일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을 받고 수군 재건길에 나선 이순신이 보성에 이르러 받은 명령은 ‘조선 수군이 미약하니 육군에 의탁해 싸우도록 하라’는 수군 폐지의 유지였기 때문이다. 전시 중에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반역에 해당하는 일이다. 또 이순신은 이미 왕명을 어겼다 하여 한산도 삼도수군통제영에서 휘하 장졸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포박되어 한성으로 호송되었다. 의금부에서 27일간의 옥살이를 하고 백의중군을 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번에도 선조의 명령에 단호히 맞섰다. 조선 수군을 포기하는 것은 곧 백성을 포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순신의 결정은 한 달여 뒤인 9월 16일 명량대첩이 되었고, 바람 앞의 촛불이던 조선의 운명은 기사회생하였다. 무엇보다도 남원성 함락으로 만여 백성이 죽고, 수십만 개의 코를 베던 왜의 만행에서 백성들에게는 실낱 같은 삶의 희망이 되었다. 당시 수군 재건길에 나선 이순신을 길가의 백성들이 아버지라는 호칭인 ‘이야’라고 불렀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필멸하면 남의 약점을 깨고 모략을 일삼던 조선 조정의 관리들이었지만, 이순신은 이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신념을 실천했기에 그 수많은 백성이 살고 희망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때 이순신을 믿고 지지했던 분들이 있다. 그 중 이순신의 종사관 정경달은 압송되는 이순신을 환산

도에서 한성까지 함께 따라갔다. 영의정 류성룡과 병조판서 이항복 등에게 이순신의 죄 없음을 탄원하고 인금을 만나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어쩌면 선조를 만나 ‘전하, 설령 죄를 물으시더라도 그 몸을 부수지 마소서. 전하께서 통제공을 죽이시면 사직을 잃으실까 염려되옵니다’라며 이마를 마루에 찡으며 호소했다. 하지만 선조는 ‘너희들이 남쪽 바다에서 사직을 얻러왔느냐?’라며 통명스레 나무랐고, 통제영을 마음대로 떠난 죄로 정경달은 곤장 십 대를 맞았다. 이순신이 보성을 다녀가고 8달 뒤인 8월 20일 왜군은 보성읍성을 공격해 열선루 등 성내 관아를 모두 불태웠다. 이때 함께 탄 보성읍성의 동문 누각은 계양루이다. 이 계양루는 중국 위(衛)나라의 ‘계란 때문에 인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고사에서 연유한다. 전국 시대에 위나라 자사가 왕에게 장수 ‘구변’을 천거했다. 왕은 구변이 하급 관리 때 계란 두 개를 뇌물로 받았으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자사는 ‘계란 두 개 때문에 나라의 방패가 될 장수를 버리면, 이웃 나라가 비웃는다’라며 ‘인재 발탁에 완전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윗층부른 나무는 딱잎부터 알아본다지만, 계란 두 개 같은 이유로 대세를 그려쳐서도 안 된다. 그러나 나 같아도 비리 부류로 권력을 재운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후쿠시마 핵 폐수가 안전하다며 수조의 물을 먹는, 사리 분별없이 설치는, 상하가 똑같은 부나방 부류가 우글대는 한, 이는 기후 재앙, 인구 절벽 같은 우환에 희망이 없음이다. 보성의 열선루와 계양루를 떠올리며 잠시 생각하는 단상이다.

社說

지역 떠나는 연구 개발 인재들...인프라 확충을

4차 산업혁명 시대 광주·전남 지역 산업과 기업의 혁신을 이끌 연구 개발(R&D)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나 생활 인프라 부족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성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과장과 남기찬·조성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그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지역 내 취업률은 41.6%에 그쳤다. 전국 특·광역시 중 평균인 43.8%를 밀도는 수 치다. 광주 지역을 떠난 연구 개발 인력들은 전남(28.7%)과 경기(8.3%), 전북(5.3%) 등으로 취업했다. 연구진은 광주가 연구 기술 인력의 수요와 공급 체계에서 모두 전국 평균에 이르지 못하는 ‘수급 의존형’으로 분석했다. 지역 대학을 졸업한 노동력이 지역 내 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취업자 중에서도 지역 대학 졸업자 수가 적어 기술 인력의 배출과 활용도가 좋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전남의 경우 여수·대불 등 국가 산단의 대기업·중견 기업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풍부하지만, 지역 내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외부 인력에 의존해야 하는 ‘인력 부족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구인·구직 ‘미스 매치 지수’는 -3.3으로, 전국서 구인난이 가장 심각했다. 산단 내 주거·여가 시설이 부족한 탓에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재들이 많은 것이다. 연구 개발 인력은 지역 산업과 기업의 혁신을 이끌고 기술을 고도화하여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광주·전남이 인공 지능과 에너지, 반도체 등 신산업에서 성과를 내려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지자체는 연구 개발 인프라를 적극 유치하고 기업들도 연구 시설 등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연구 거점도 더 이상 교외가 아닌 소비·문화·장차 활동이 집중되는 도심에 조성,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 네트워크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균열·침하’ 지하철 공사 피해 대책 강구해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도심 곳곳이 공사장으로 변하면서 시민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지하터파기 공사를 위해 도로 위에 덮여 놓은 복공판으로 인해 자동차 타이어가 찢기고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오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민들이 제보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 피해 민원은 그제까지 총 148건에 이른다. 가장 많이 접수 된 민원은 차량 파손으로, 타이어 찢김과 펑크가 40여 건에 달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둘러본 지산동 범원사거리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도로에 설치된 복공판이 위로 솟아 올라 조금만 빠르게 지나가면 차량 전체가 공중에 뜨기도 했다. 공사 여파로 인한 건물 균열 민원도 33건이나 됐다. 동구 계림동 서방사거리에 사는 40년 된 콘크리트 건물의 옥상 하단과 바닥에 금이 갔고, 북구 중흥동 2층 건물 주차장은 지반이 침하되거나 건물 틈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 파손도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서구 운천로 인근 지하철 공사 현장을 매일 다니는 택시 기사는 도로가 반듯하지 않은 탓에 차량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수리를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이다. 광주시청 민원접수 전화(120번)로 보상 신청을 해도 감감무소식이어서 타이어나 차량 부품의 경우 대부분 개인 혹은 차량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불편은 예견된 일이다. 수년에 걸쳐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 크고 작은 불편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차량 파손 등 수리 비용까지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도시철도공사는 시민 불편과 피해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상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TV만 틀면 초혼이나 재혼, 심지어 중·노년들의 재결합을 다룬 ‘짝짓기’ 프로그램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온다. 중매(仲媒)가 옛날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여전히 유용한 결혼 방법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조선시대는 물론 유럽에서도 중매는 일반적인 결혼 방식의 하나였고, 특히 결혼을 집안 간의 결합으로 여겼던 중세 시대 지배 계층들은 자연스러운 풍습으로 받아들였다. 기록상으로 최초의 중매쟁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최고의 신 ‘제우스’라는 점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테티스가 다른 신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우스는 아예 테티스를 인간과 짝 지워 화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였다. 이렇게 제우스의 중매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 성공,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아킬레우스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혼인의 신은 월하노인(月下老人)이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신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점어 이채롭다. 태초 바다가 태어난 신의 자손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즉 랭킹 1·2위 신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예쁜 여지만 보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마는 제우스도 테티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는 ‘테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 넘어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자신도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의 신이 됐기 때문에,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경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아가